

##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재개발사업 추진 '탄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독산동 1072번지 일대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2025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개정 이후 8월 서울시 규제철폐안(142호)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한 첫 사례이다.

구는 개정 법령과 규제 개선 지침을 신속히 검토해 독산2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지원이 아닌 '주민자율'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은 허용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승인까지 약 2개월 만에

완료됐다. 독산2구역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연접한 독산1구역(독산동 1036번지 일대)과 함께 2024년 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구는 올해 7월 독산1구역과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로로 신설과 함께 최고 40층, 15개동, 총 2,065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독산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산2구역은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을 크게 웃도는 66%로, 주민들의 높은 사업 추진 의지도 확인됐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독산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뛰고 배우는 겨울방학, 강서구 청소년 체육교실 문 연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돋기 위해 '2026년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체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종목은 ▲K-POP 댄스(신설) ▲인공암벽(클라이밍) ▲아이스스케이트 ▲볼링 ▲풋살 ▲탁구 등 총 6개며, 연령에 따라 10개 교실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선호를 반

영해 K-POP 댄스 교실을 새롭게 개설했으며, 클라이밍과 아이스 스케이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도 포함해 체험이 폭을 넓혔다.

모집 인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135명으로 신청은 오는 12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4일(일) 오후 6시까지 강서구 공공체육시설 누리집(sports.gangseo.seoul.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1인 1종목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 전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6일(화) 오전 10시 강서구 공공체육시설

누리집에 게시되고, 개별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체육교실은 2026년 1월 12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3주간 운영되며,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클라이밍센터, 아이스온, KBS스포츠월드 볼링장 등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교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수정가결'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대림 및 사당·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7천㎡ 규모의 공동주택 77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업

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편의 및 공공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장성 기자

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했다.

이울려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공지를 마련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

이장성 기자

##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강북권 만성 교통 정체, 지역 발전 저해, 고가유지보수비 증가로 구조적 개선 필요성↑

왕복 6차로 지하도시고속도로 신설→ 고가 철거 및 지상도로 정비로 2~4차로 추가 확보



철거 후 지상 차로 추가 확보를 연계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을 마련해 강북권의 교통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구조 재편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상황, 주변 지역여건 및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로 지하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개통 직후 기존 고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고가도로 철거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는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2차로의 지상도로를 추가 확보해,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지상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약 3조 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잠정 수치로, 시는 향후 교통 수요 전망과 혼잡 완화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강북의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한해를 밝힌 시민들, 새해를 울린다...제야의 종 타종인사 11명

문화상 수상자 양희은, 꾸준한 선행을 베푼 션, 베스트셀러 작가 정세랑도 참여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발표했다.

선정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번 타종인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다.

지난 11.6.(목)~11.30.(일)까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 명을 추천 접수받아 타종인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타종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이다.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뺨을 나누어주는' 김상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심폐소생술로 2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바스기사' 정영준 씨는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리스트' 나마다 조엘 진 씨,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 '노면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윤석덕 씨,

'지뢰로 다리를 잊었지만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현 씨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씨,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도 타종 인사로 선정됐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5년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해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AI 속품 '돈워리 비해치 수호대' 전격 공개...180만 조회 돌파

서울의 명소·정책 담은 1분 애니메이션 8편, 세대 맞춤형 '생활밀착 콘텐츠'로 진화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서울의 명소와 정책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AI 속품 1분 애니메이션 '돈워리 비해치 수호대' 8편을 12월 한 달 동안 공개한다.

이번 시리즈는 덕수궁 단풍길, 북촌한옥마을, 한강공원, 서울광장 아이스링크 등 실제 공간을 토대로 제작해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콘텐츠'로 기획되었다.

애니메이션은 12월 매주 월요일·수요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X·외국어 플랫폼)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1분内外의 짧은 구성으로 누구나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2월 첫째 주 AI 속품 공개 후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180만 회를 돌파하며 시

민 호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치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서울의 정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생생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세대 전반의 공감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 정보를 AI로 미리 공지해주는 아이디어도 정말 좋네요. 캐릭터로 재미있게 알려주는 '제야의 종 타종인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씨,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도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해치와 소울프렌즈는 이제 서울의 일상에서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캐릭터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과 AI 속품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해치가 서울의 매력과 정책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생활 속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